

# 광주·전남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령자 고용률 증가로 생산가능 인구감소 상쇄  
지역경제 활력 둔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발표

광주·전남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 훈련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박지섭 과장과 강수연 조사역이 2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고령자 경제활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2.4%에서 2017년 31.4%로 9.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47.1%에서 48.9%로 1.8%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기준 광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광역시 평균

27.8%보다 3.6%포인트 상회하고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광역도 평균 38.5%보다 10.4%포인트가 높다.

경제활동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광주가 2000년 2.9%에서 2017년 7.5%로 4.6%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12.6%에서 20.9%로 8.3%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광주가 2000년 22.4%에서 2017년 30.7%로 8.3%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2000년 47.1%에서 2017년 48.0%로 0.9%포인트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고령자 대부분이

농림어업 종사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은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인 수요 발생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109만8000명에서 2017년 108만9000명으로 9000명이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가 1만명 증가해 핵심 생

산기능 인구 감소분을 상쇄했다.

전남도 생산가능 인구가 110만 9000명에서 110만2000명으로 7000명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가 1만2000명 증가했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청년 일자리를 대체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분야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연구팀은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청년층 유출 억제와 출산을 제고 등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저연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직업 재교육 훈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여수산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퇴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력 활용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재교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도시·환경 분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공유회에 참석해 2018년 주요 현안 사업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윤장현 광주시장 “시정 최고 목표는 일자리”

### 도시·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 보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22일 시공사를 방문, 도시·환경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광주도시공사, 광주 도시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본청 기획조정실장, 관련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밸리, 도시철도 2호선, 저탄소 녹색 광주 등 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쟁없는 남북평화와

일자리로 특히 일자리는 시정의 최고 목표’이며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일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지하철 역사 내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도 “빠른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입주 시기를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전입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준비에 민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 로타바이러스 유행 조짐...영·유아 집중

### 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3주간 급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영·유아를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구토와 설사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4개 협력병원을 포함해 10여개 병원에서 수집한 설사환자 가검률의 원인별 분석 결과 로타바이러스가 1월에 6.3%(206건 중 13건),

2월 첫째 주 18.4%(49건 중 9건), 3째주 29.8%(47건 중 14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가 84%(44건 중 37건)를 차지했다.

로타바이러스는 대변과 구강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1~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별열이 나타나고 4~6일 가량 수양상 설사가 이어진다. 영·유아의 경우 잦은 설사와 구토로 탈수증이 일어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신봉우 기자

## 전남도-해외 향우, ‘전라도 친년’ 매력 전세계 홍보



전남도 가 해외 향우들과 손잡고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해외 홍보에 본격 나섰다.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의 호남향우회를 통해 전라도 친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라도 방문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호남향우회 종연 학회는 2013년 10월 창립 이후 24개 나라 52개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매년 10월 4일을 ‘세계호남인의 날’로 제정해 기념함으로써 세계 각지에 전라도를 알릴뿐만 아니라, 전라도 3개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 해남·나주·목포



湖 南 新 聞  
지 역 공 갑  
미 래 쟁 조  
정 론 속 필 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 南 新 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측량>>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창업상담>>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동구, 건강친구 나눔교실 개강식 개최

광주 동구가 22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상자의 건강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교실인 ‘건강친구 나눔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75세 이상 노인부부,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 3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개강식에서는 ▲‘건강친구 나눔교실’ 운영방안 설명 ▲웃음치료 강의 ▲미세먼지 예방법 교육 및 마스크 배부 ▲심방세동검사 ▲균형능력 측정 및 보행평가 ▲유연성·하지근력 등 체력평가 ▲구강불소도포 ▲다리마사지 등을 진행했다.

동구는 다음달 7일 심뇌혈관예방 건강교실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보건교육실에서 치매예방, 고혈압, 구강검진, 타이치 운동, 우울증, 안(眼) 질환, 암, 당뇨, 근력 등 건강문제별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 서구, 청년인턴채용 협약 체결

광주 서구가 22일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5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은 서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여제시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근로조건 사업 규모 등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된 업체는 해미로식품, (주)베비에르(주)민국제인, 수영ING, 대안치과기기공조 등 5개 업체이다.

참여 기업체는 청년인턴 참여자의 근태관리를 총괄하게 되고 서구에서는 청년인턴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간 월 90만원씩 기업체에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남구,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17곳 추가

광주 남구 관내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기질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이 추가로 구축됐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이 새롭게 구축된 곳은 남구청 본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16곳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외부활동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초미세먼지, 유기 휘발성 화합물질(TVOC), 온도, 습도 등 공기질 상태를 24시간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이다.

이로써 남구 관내에는 총 20곳에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이 구축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공기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북구,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주 북구가 지역 주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 정착을 위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다음달 2일까지 2018년 일과·운암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문화·독서프로그램은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주 과정으로 일과도서관은 14개 강좌, 운암도서관은 13개 강좌가 각각 개설된다.

수강인원은 강좌별 20명 내외로 유아 및 어린이, 일반인, 어르신 등 모든 연령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부분의 강좌는 무료이고 몇몇 강좌에 대해선 교재 및 재료비가 별도 부담이 된다.

## 광산구, 2018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

광주 광산구가 2018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상을 수상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법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11시 국회원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15년부터 3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환경 실천성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광산구는 주민주도 사업들이 주목받았다.

임형택 기자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 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